네팔 어퍼 무스탕, 탱화·사원 발굴 '가속화'

아메리칸히말라야 재단, 잠파 라캉 등 복구 작업 돌입

'숨겨진 불교문화의 보고'로 알려진 네팔 '어퍼 무스탕(Upper Mustang)' 지역서 탱화를 비롯한 전통 티베트 불교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숨 가쁘다.

어퍼 무스탕 지역은 1992년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기존 네팔 정부는 무스탕 왕국의 수도인 '로 만탕(Lo Manthang)'으로의 여행을 불허했기 때문에 1991년까지 무스탕은 일반에 완전히 차단돼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일부 관광객들에게 출입을 허가했다.

이후 세상에 공개된 어퍼 무스탕에선 초기 불교의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 및 동굴벽화, 조각 등 불교유적이 대거 발견됐다. 특히 이 지역 로 게카르(Lo Gekar) 사원은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가 건축한 것으로, 티베트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연 침식작용 및 2014년 발생한 대지진 피해로 인해 잠파 라캉·로 게카르 사원 등에 피해가 발생,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8월 3일(현지시간) "지난해 지진으로 잠파 라캉 사원 곳곳에 금이 갔다. 로 게카르 사원도 자연 침식작용으로 인해 벽과 기둥 등이 훼손됐고, 프레스코 벽화가 검게 그을렸다"며 "현재 이 지역엔 탱화를 비롯한 전통 티베트 불교문화를 보존·복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복구는 아메리칸히말라야재단(American Himalayan Foundation)의 총괄로 진행된다.

그 중 탱화 복원팀의 소속원인 왕 지그메(Tsewang Jigme) 씨는 "이곳 벽화들은 세계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다. 복구 작업 중에도 볼 때마다 긴장된다"며 "매우 조심히 다뤄 손상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 말했다. 지그메 씨는 티베트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수호하려는 예술가로, 중국서 종교를 극심히 탄압하던 문화혁명 시절 탈출했다.

주민들은 탱화 복원 작업에 유독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탱화

1992년 세상에 공개된 후
불교문화 발굴 관심 확대
미 정부 지원으로 '본격화'
최근 탱화복원 작업 중점

를 복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와 다름없다고 여길 정도다.

지그메 씨는 "탱화를 덮고 있는 진흙을 제거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서히 탱화가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주민들이 오열하기 시작했다"며 "마을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는 탱화를 무사히 복원하기 위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감행할 것"이라 말했다.

어퍼 무스탕 지역은 지난해 4월 네팔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비교적 적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복구된 탑이 마을을 지켜준 것"이라며 강한 불심을 드러냈다.


네팔 '어퍼 무스탕(Upper Mustang)' 지역의 불교 유적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사진출처=scmp

그러나 모든 불교문화 유적이 대지진을 온전히 피해간 것은 아니었다. 로 만탕 지역의 왕궁을 비롯해 많은 사원들이 배수 시설의 파괴로 곰팡이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벽화에 세계 최대 만다라가 그려진 것으로 유명한 15세기 건축된 잠파 라깡 사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벽 곳곳에 금이 갔고, 여전히 바닥에는 500년 역사의 프레스코 벽화 조각들이 흩어져있다.

한편 어퍼 무스탕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은 2008년 비영리단체 로 걀포 지그메 재단(Lo Gyalpo Jigme Foundation)이 미국 정부로부터 2만3000달러(한화 약 2500만원)를 지원받으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0년 전 이 지역 게미(Ghemi) 마을의 2개 쵸르텐(마을을 액운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불교식 탑)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당시는 불교문화 보존에 대한 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중 1개는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돼 내부 석판이 모두 깨져 있었다. 이에 재단은 100여 명이 넘는 일꾼을 투입해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알래나 테필츠 네팔 주재 미국 대사는 "이곳의 다채로운 문화유산 대부분은 대체 불가능할 만큼 가치가 높다. 하지만 기념비들 대부분은 진흙으로 빚어지고, 그림과 나무 조각으로 이뤄져 변질되기 쉽다"며 "이미 손상된 문화유산에 대해 네팔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매우 상심할 것"이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英 브렌트우드, 어린이 명상교실 운영 '눈길'

5~12세 위해 '사람·동물·자연' 주제로 명상 진행

영국 한 불교센터가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브렌트우드 불교센터는 오는 9월 10일부터 5~12세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조 홀트는 "컴퓨터와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과 달리 어린이들은 5~6세의 이른 나이에 스마트폰 등 기계를 접한다. 이에 따라 개인 간 유대관계가 줄어들고 자연과 동물 등 주변의 아름다운 것을 접할 기회를 잃었다"며 "이런 현상은 그들의 자비와 연민심을 줄어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상은 기계문명으로 소홀해진 주변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된다. 어린이들도 명상을 하면 자신만의 여유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명상센터에서 사람, 동물, 자연 등 3가지 주제에 맞추어 명상을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게임과 시(詩), 노래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쌓는 경험도 가질 계획이다.

어봇제임워드 브렌트우드 불교센터 장은 "수업은 보호자들도 함께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주 어린이 명상그룹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사함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한다.

브렌트우드 불교센터는 프로그램 진행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달 '마음, 몸 그리고 영혼(The Mind, Body and Spirit)' 행사를 실시했다.


영국 잉글랜드 브렌트우드 불교센터는 9월부터 5~12세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한다. 사진출처=에식스크로니클닷컴

한편 브렌트 우드 불교센터뿐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명상의 장점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엠마 세팔라 스탠퍼드 대학의 '연민과 이타심 연구 및 교육 센터(CCARE)' 연구원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명상이 행복과 연민심, 그리고 사람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세팔라 연구원은 "명상을 주제로 한 수백 개의 연구를 통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면역력을 기르고 통증 및 상처의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또한 뇌 심상화 연구를 통해 명상이 주의력과 집중을 길러주고 기억력을 향상 시키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행복과 자비심을 상승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어봇제임워드 센터장은 "명상으로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생각하는지를 자각하게 하고 조절하게 할 수 있다"며 "수많은 연구결과가 뒷받침 해주듯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을 증대해 주고 안정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싱가포르 억만장자, 5만여 불교 예술품 공개

홍 레옹 회장, 소장품 5만여 점 개인 박물관에 전시

싱가포르 대기업 홍 레옹 그룹의 외 홍 레옹(Oei Hong Leong) 회장이 평생 수집한 불교 예술품 5만여 점을 전시한다.

경제지 '포브스'는 8월 3일(현지시간) "억만장자 외 홍 레옹 회장이 4층 규모의 개인 박물관 '네이 쉬에 탕'서 5만여 점의 불교 예술품을 전시할 예정"이라며 "전시품들은 인도·태국·중국·몽골 등 아시아 전역서 수집됐다. 이 박물관엔 오직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홍 레옹 회장은 40년 전 싱가포르로 이사 오며 불교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내가 불교 예술품에 매혹된 이유는 '숙명'과 다름없다"고 말한 홍 레옹 회장은 당·송·명나라 시대 진귀한 예술품을 포함, 최대의 개인 소장 예술품을 보유한 사람이다.

전시품들은 판매는 불가할 예정이다. 특히 홍 레옹 회장은 소장품 전부를 전시할 추후 계획에 대해선 "그럴 예정 없다"고 답하며 "소장품 전부를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홍 레옹 회장은 "불교 예술품 수집이란 취미가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줬다. 그 운으로 사업도 성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인 소장품 '18승려들'과 함께 있는 외 홍 레옹 회장 모습. 사진출처=inusanews

한편 이번 전시에선 홍 레옹 회장이 보유한 예술품 중 일부 소장품이 제외됐다. 공간적 한계 때문에 모든 소장품을 수용할 수 없고, 가장 진귀한 것들은 회장의 저택에 보관 중이기 때문이다. 전시서 제외된 소장품 중 '18승려들'이라 불리는 122cm 목조 조각상은 홍 레옹 회장이 20년 전 싱가포르의 한 사원서 구입했다. 홍 레옹 회장은 20년 전 약 77억을 주고 산 이 조각상이 현재는 3배에 달하는 가치를 지닐 것이라 추정한다.

박아름 기자

티베트 비구니 스님 소신 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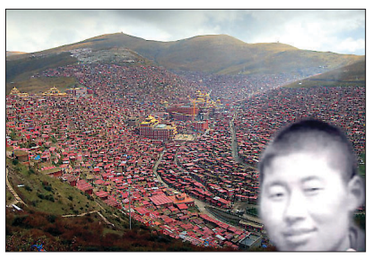
"라룽가르 축소 및 탄압 못참아" 유서 남겨

중국 쓰촨성에서 티베트 비구니 스님이 당국의 티베트 탄압정책에 항의해 자살했다고 '티벳포스트'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티베트 최대 불교학원인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 소속 비구니 스님 릭진돌마가 "순수한 티베트 승려들을 억압하는 중국의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했다.

릭진 돌마 스님은 중국 쓰촨성 간쯔 장족자치주 더거 지역 출신 인물로 라룽가르 발전을 위해 기부 하는 등 애정을 쏟았다.

티벳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최대 불교강원 주변 시설을 철거하고 학승 감축을 명령하자, 티베트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과 티베트 행정부는 이같은 탄압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 소속 비구니 스님 릭진돌마가 "티베트 승려들을 억압하는 중국의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며 목을 매 자살했다. 사진출처=티벳포스트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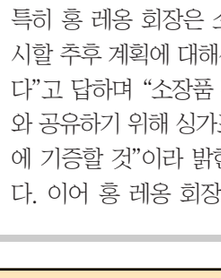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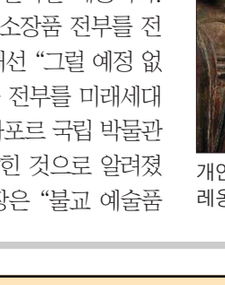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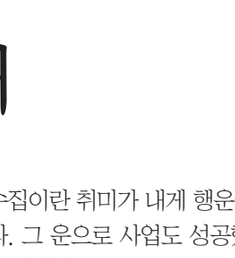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